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식물채집을 통한 생명의 존재성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프린트 전공

홍 혜 림

식물채집을 통한 생명의 존재성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프린트 전공

홍 혜 림

인 준 서

홍혜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심사위원 _____ ⑩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논문개요

이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내용적(內容的) 측면과 조형적(造形的) 측면에서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작가는 작품을 제작하면서 조형 대상과 소통하면서 기존의 이미지를 새롭게 조명하기도 하고 보편적 사고와는 전혀 다른 인식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기도 한다.

본인 작품의 소재는 식물이다. 식물은 정적이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생명성을 지닌 이미지라는 점에 착안하면 식물은 그 어떤 다른 생물체보다도 역동적인 생명성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주목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즉 식물은 역동적이고 근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본인은 이와 같은 식물을 조형화하고 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식물의 생명 이미지를 재조명하고 식물의 생명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내용적, 조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생명체의 의미’와 ‘조형 대상으로서의 식물의 생명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째 ‘생명체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씨앗이나 뿌리, 줄기, 잎과 열매 등과 같은 식물의 구조는 역동적이고 원형적인 식물의 생명의 이미지를 나타내기에 매우 적절하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본인은 식물의 구조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형화한다. 또한 식물의 생애와 채집 후의 전 과정을 통해 식물의 잔재와 흔적을 탐색하고 생명의 의미를 탐색한다. 둘째, ‘조형 대상으로서의 식물의 생명성’은 비가시적이고 암묵적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식물은 자세히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채집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식물을 파악해야만 새로운 조형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고 식물에

서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생명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식물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존재성의 관점에서의 재구성화하고 조형화하는 과정에서 식물의 생명성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조형적 측면에서는 식물의 생명성을 보다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조형적 요소로서 ‘선과 면’, ‘나열’, ‘설치’, ‘모노톤’, ‘드로잉’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선을 표현하거나 점과 면의 형태로 선을 변형하는 작업을 통해 식물의 구조를 조형화한다. 둘째, 식물을 다각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조형화한 것을 한 화면에 나열함으로써 식물을 원형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재현한다. 셋째, 식물의 원형과 조형화한 대상을 동일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식물의 생명성의 원형과 변화과정을 표현한다. 넷째, 식물을 표현하는 색채의 경우 갈색이나 회색 톤의 모노톤을 사용하여 식물의 다채로움 속에 함의된 원형적 색채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표현을 시도한다. 다섯째, 드로잉은 채집과 동시에 식물의 원형과 채집 장소, 시간, 채집 채집자의 정서를 담고 있는 기록으로써 식물과의 소통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드로잉 작품을 조형 작품과 함께 전시함으로써 식물과의 소통을 제안하고 친밀한 관계형성을 도모한다.

본인은 지나치기 쉽고 작은 식물을 통해 역동적이고 원형적인 생명의 이미지와 미적 요소를 조형화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작은 식물을 관찰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하여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다양한 미적 요소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본인은 이러한 경험을 관객과 함께 공유하며 소통함으로써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재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하며 나아가 본인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고 앞으로의 작업 전개에 새로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내용적 측면	4
1) 생명(생명체)의 의미	4
2) 조형대상으로서의 식물의 생명성	6
2. 조형적 측면	9
1) 점과 선	9
2) 나열	12
3) 설치	14
4) 모노톤(Monotone)	16
5) 드로잉(Drawing)	18
3. 작품설명	21
III. 결론	43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Ego-Plants, 90cm×60cm, collagraphy, 2007	21
【작품 2】 Ego-Plants, 90cm×60cm, collagraphy, 2007	22
【작품 3】 Ego-Plants, 90cm×60cm, collagraphy , 2007	23
【작품 4】 Ego-Plants, 90cm×60cm, collagraphy, 2007	24
【작품 5】 Ego-Plants, 90cm×60cm, collagraphy, 2007	25
【작품 6,7】 Ego-Plants drawing, 17.5cm×25.5cm, pen on paper, 2007	29
【작품 8,9】 Ego-Plants drawing, 17.5cm×25.5cm, pen on paper, 2007	30
【작품 10,11,12,13】 Ego-Plants drawing, 17.5cm×25.5cm, pen on paper, 2007	31
【작품 14,15,16,17】 Ego-Plants drawing, 17.5cm×25.5cm, pen on paper, 2007	32
【작품 전시 모습】 Ego-Plants drawing, pen on paper, pin, 2007	33
【작품 18】 Ego-Plants, 40cm×40cm×4, Gum bichromate printprint, 2005	36
【작품 19,20,21,22】 Ego-Plants, 15cm×15cm×4, collagraphy 2006 ...	38
【작품 전시 모습】 Ego-Plants, collagraphy, 2006	39
【작품 23】 Ego-Plants, 23cm×30cm×15cm , Paper Box, 2007	41

I. 서론

어린 시절부터 본인에게 식물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변의 여러 대상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다른 정서를 갖게 하는 특별한 대상이었다. 즉 식물은 관찰의 대상이고, 수집의 대상이며 소통의 대상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식물을 통해 식물의 미적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역동적이고 원초적인 생명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식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식물을 관찰 및 수집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식물과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물은 본인에게 조형적 표현의 대상이 되었다.

식물은 다른 생물체와 비교할 때 정적이고 자립적인 대상이다. 동물처럼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거나 성장이 눈에 띄지 않는다. 식물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익숙한 대상이다. 특별히 찾아내거나 구하지 않아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식물의 특성으로 인해 식물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간과되기 쉽고 식물의 생명력도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물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일부였고 동물과 인간에게 양분을 공급해왔고 인간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물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역동적이고 끊임없는 원초적 생명력으로 다른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채집하여 내적 표현의 대상으로 삼는 식

물은 크고 잘 알려진 식물만은 아니다. 모든 식물에 관심을 갖지만 특히 관심을 갖는 대상은 작고 소박하고 이름 없는 들풀이나 야생화, 땅에 떨어지고 바람에 날린 이름 모를 풀들과 열매, 그리고 씨앗 등이다. 특별히 작은 식물에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작은 식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한 생명력 때문이다. 작은 식물과 식물의 작은 구성요소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동적 생명력은 그 어떤 큰 식물이나 동물보다도 크고 강하다.

한편 나에게 있어 채집은 식물의 흔적과 자취를 찾고 보존하는 과정이다. 채집을 통해 식물은 마르고 쇠퇴하지만 식물의 흔적은 있는 그대로, 오랜 시간동안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다. 보통 식물채집의 과정은 식물의 외형을 평면화하지만 표본함이나 종이상자를 이용한 채집은 식물의 외형을 있는 그대로 유지시킨다. 외형이 보존되어 채집된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식물의 구조와 다양한 색채 및 외형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물에 잠재되어있는 원형적 생명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식물에 대한 본인의 특별한 인식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관찰과 채집의 과정을 조형화 한 작품 중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의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제작 동기를 포함하여 조형 대상에 대한 내적 인식의 조형적 표현 방식을 고찰하고 기술한다. 특히, 식물 채집을 통해 드러나는 생명의 존재성을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본인이 제작한 작품을 자세히 분석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생명 혹은 생명체의 의미를 보편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생명의 의미를 식물과 관련지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조형대상으로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성을 조형 예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조형적 측면에서는 식물의 생명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점과 선, 나열 등

의 조형요소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배치를 통해 드러나는 식물의 생명 이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갈색 톤의 모노톤과 드로잉 기법을 통해 식물의 생명성이 조형화되는 방식을 논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내용적 측면

1) 생명(생명체)의 의미

‘생명(生命)’의 사전적 의미는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또는 모든 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으로서 생물로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된다. 즉 사람이나 동·식물과 같은 개체가 환경 속에서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생명의 의미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같은 개체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다.

특히 식물은 동물이나 사람처럼 이동하거나 복잡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생태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개체이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 이를 동물이나 사람에게 공급함으로써 생태계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식물은 동물이나 사람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생명체이며 생명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개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은 또한 회화적 표현의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형 대상이기도 하다. 식물은 구성 성분마다 독특한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식물의 종(種)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예술적 영감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식물의 씨앗은 형태의

측면에서는 조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생명의 의미적 측면에서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한다. 특히 씨앗은 발아하여 완전히 성장한 식물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성장한 식물체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식물체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식물의 줄기는 형태적 측면에서 선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조형적인 리듬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뿌리와 잎을 매개하는 매개체로서 생명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식물의 잎은 형태적 측면에서 면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다양한 타원형의 형상이 역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식물의 역동적인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식물의 꽃과 열매는 식물의 고유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면서 완전한 조형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명의 결정체로서 결실과 개체 유지를 보여주는 식물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식물의 씨앗과 줄기, 잎과 꽃 등은 각기 고유한 조형적 형태를 나타내는 동시에 생명의 다양한 의미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의 개화와 결실, 시듦의 과정은 생명의 생성과 성장, 상실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식물은 그 자체를 재현하기에 적절한 대상인 동시에 생명의 의미를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매개체로서도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식물은 동물이나 사람과 비교할 때 정적이며 수동적이다. 동물이나 사람처럼 이동이 가능하지도 않고 세포의 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가시적이지 않을 뿐이지 실지로는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식물의 존재 의미를 더욱 확고하게 나타낸다. 또한 고요하고 정적인 가운데 유지되는 생명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한

다.

식물은 유려한 곡선과 다양한 색채, 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형태나 색채가 바람이나 기온의 영향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존재로서 다채롭고 역동적인 조형 표현이 가능하다. 식물의 이러한 형태를 통해 생명의 역동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물은 생성과 성장, 발전, 쇠퇴의 과정을 통해 연속성과 시간성, 순환성과 같은 생명의 원초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서 자연과 예술의 중요한 조형매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식물의 형태와 이미지는 생명의 의미를 나타내기에 매우 적절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인은 생명의 의미를 형상화하는데 있어서 식물의 다양한 구조를 활용하여 조형화하고자 했다. 또한 식물의 씨앗이나 줄기, 잎 등과 같은 개체의 흔적을 남기는 과정을 통해 생명체의 쇠퇴와 삶의 소진을 표현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가 쇠퇴하여 모든 삶이 사라지고 골격과 뼈대만 남는 과정을 식물의 잔재와 흔적을 통해 조형화하고자 했다.

2) 조형대상으로서의 식물의 생명성

영국의 철학자 루돌프 아른하임(Rudolph Arnheim)은 “사고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이미지는 사고를 담는다”¹⁾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이미지라는 것은 특정 기억의 산물이다. 즉 이미지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기억들과 그 기억들에 대한 재현과 표상이라는 사고과정이 축적된 산물이다.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해 사고한다는 것은 이미지로 재현되는 것이고 재현된 이미지는 특정대상에 대한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지시각」 김춘일역, 기린원, 1982, 미진사, 2003

이렇게 볼 때 조형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내용들은 이미지를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형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내용은 이미지인데 그 때의 이미지란 결국 사고의 경험에 의하여 축적된 이미지들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²⁾ 다시 말하면 예술가들은 조형 활동을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되고 함축된 인간 사고의 결과물로서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시각적 관점에서 작가가 형성한 이미지는 특정 대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재해석한 결과물로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대상이 최초로 존재했던 시·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고 원래의 형상과는 다른 형상으로 재현된다. 여기서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 시각과 판단은 전적으로 예술가의 견해에 의존한다. 예술가는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대상이 미적 대상으로 인식되도록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미지 자체는 사고의 산물이지만 예술가는 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새롭게 창조한다.

예술가들이 자연을 표현하는 경우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주관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고 변형되어 표현됨으로써 미적 가치를 갖는 예술품이 된다. 자연 속에 있는 식물은 동적 대상이 아닌 정적 대상이지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장과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대상이다.

식물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먹거나 재배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대상이다. 식물은 특징적인 뿌리와 줄기를 통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선의 이미지를 내포하며 잎이나 꽃, 열매를 통해 넓고 좁은 면과 특징적인 질감, 반복적인 이미지 등을 갖는다. 이러한 식물의 이미지에 대해 작가는 주관에 따라 재해석하여 식물의 이미지를 표현할 것이다.

본인은 식물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식물의 생명성에 주목

2)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창지사, 1991, p.155

한다. 생명은 움직임의 의미이며 이 움직임은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힘이다. 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식물은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식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전진한다. 식물은 씨앗이 발아하기까지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여 생성하며 식물의 뿌리와 줄기들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성장하며 꽃과 열매를 거쳐 소멸한다. 이러한 과정은 생명의 역동성과 순환성을 보여준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거나 살아있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평범한 시력의 보편적인 시각으로 관찰할 때의 식물과 고사되거나 의도적으로 채집하여 말린 특별한 상태에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관찰할 때 식물은 다른 조형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히 관찰할 때 식물은 전혀 다른 새로운 조형적 대상이 되기도 하고 소멸하고 쇠퇴한 대상에서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생명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본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식물을 관찰하고 관찰한 대상을 생명의 존재성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조형화한다.

2. 조형적 측면

1) 점과 선

식물의 잎을 살펴보면 구조가 동일하고 잎맥도 유사하게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물의 잎을 자세히 관찰하면 동일하고 유사하게 보이는 잎과 잎맥에서 동일한 형상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식물의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조형적 요소는 점과 선이다. 점과 선은 간결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식물의 씨앗과 줄기, 잎, 꽃 등의 구조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된다.

칸딘스키는 점을 내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간결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간결한 점이 움직여 나가는 흔적, 즉 점이 만들어낸 소산을 선이라고 했다.³⁾ 점은 움직임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 형태에서 선을 이루기도 하고 면을 이루기도 한다. 식물은 최소한의 기본 형태인 점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점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불규칙적이고 불연속적인 선을 통해, 또는 수많은 점들의 다양한 이합집산을 통해 구성된 면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종이와 같은 표면에 다양한 도구와 충돌함으로써 형성되는 점을 통해 식물의 구조와 형상을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종이에 니들, 송곳, 볼펜 등의 도구가 충돌하면서 형성되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점들은 점 그 자체로 씨앗과 같은 식물의 한 부분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점들은 일상적인 상태의 식물보다는 말리거나 시든 상태에서 더 잘 관찰되는 잎 표면의 형상을 표현

3) 칸딘스키 「점, 선, 면」 차봉희역, 열화당, 2004

하기도 하고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모양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점은 선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식물의 외곽선을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식물의 자연스러운 외곽은 분명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선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외곽선은 점을 움직여 나감으로써 만들어지는 선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정 도구를 통해 이미 완성된 점과 점 사이의 공간을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해 만들어지는 점으로 채워줌으로써 잎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

점은 선뿐만 아니라 면을 이루기도 한다. 점으로 면을 채울 때 점을 밀도 있게 인접하거나 흩어놓음으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 열매 등의 질감과 색채를 효과적으로 조형화할 수 있다. 한 종류의 식물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채도와 명암을 점의 밀도를 다르게 하여 표현함으로써 식물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자연스럽고 다양한 식물의 색채를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채집과정에서 형성되는 우연적인 문양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흔적을 표현하는데 점은 매우 유용하다. 식물을 채집하면 식물 자체뿐만 아니라 식물의 잎에서 유출된 액체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양이 형성된다. 또한 채집된 식물에는 시간이 지나면 원형에서는 발견할 수 없던 새로운 흔적이 남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는 물과는 섞이지 않고 점성이 강한 니스와 같은 액체를 지면위에 고형화시킴으로써 잉크가 흡수되지 않은 면을 점으로 나타내어 표현할 수 있다.

점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선도 점과 유사하게 가장 단순한 표현 요소이다. 그러나 점과는 달리 선은 형태를 결정짓기도 하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동양에서는 선을 사물의 윤곽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조형요소로 인정했다.⁴⁾ 즉 동양적 관점에서 선은 사물을 나

타내는 보조적이고 단순한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이고 정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서양의 추상 표현에서 선은 작가들의 공통된 표현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서양 작가들은 우연의 법칙을 근본으로 드리핑(Dripping)이나 타시즘(Tachisme) 등 무의식적인 행위를 통한 여러 기법 또는 자유로운 붓놀림, 캘리그래피(Calligraphy) 등을 통해서 선을 표현한다. 이러한 추상적 표현은 선을 통해 우연성이나 역동성을 표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선은 점과 유사하게 그 자체로 내용을 함축할 수 있고 의미의 전달도 가능하다. 시인이자 예술 문학 평론가였던 허버트 리드(Herbert Read)는 선은 요약된 것이며 그 자체가 그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선은 이미 가시적인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우주의 질서 속에 내재된 생명성을 갖는 기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⁵⁾

선의 이러한 특성은 식물의 잎과 잎맥, 줄기의 외형을 표현하며 동시에 식물의 생명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은 식물의 잎맥이나 뿌리, 줄기 등을 조형화하는 수단이 된다. 외떡잎식물의 나란한 맥과 같은 형상은 점이나 면보다는 선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하며 식물 뿌리의 가느다란 잔뿌리도 선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⁶⁾.

이와 같이 식물의 외형적 형상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선은 식물의 생명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식물의 생명성은 뿌리, 줄기, 잎의 잎맥 등을 통해 선형적으로 이동하는데 선은 이러한 생명성을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4) 김종정, 「식물 이미지의 회화적 표현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

5) 변유진, 「씨앗을 소재로 한 작품의 이미지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8

6) 배경이나 음영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 표면에 사포로 문지르는 스크래치 과정을 통해 가느다란 선을 표현할 수 있고 배경의 톤을 조절할 수 있다.

다. 땅 속에 묻혀있던 씨앗은 선형의 뿌리와 줄기가 생성되면서 식물로서 성장한다. 그리고 식물은 땅 속의 영양분을 뿌리와 줄기, 잎이라는 기관을 통해 이동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은 점을 통한 불연속적 전달이나 면을 통한 확산이 아니라 선을 통한 동적인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본인의 작품에서 선은 기본적으로 식물의 외양을 표현하는 수단이지만 나아가 점, 면과 함께 외양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양감이나 입체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생명성을 표현하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씨앗이 파종되고 식물로서 생성,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공간적 측면의 선형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선은 이상적인 수단이다.

2) 나열

자연에서 야생화가 피어있는 장소를 관찰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한 종류의 야생화가 군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파종을 하지 않았지만 꽃가루받이의 자연적 섭리에 의해 특정 종류의 야생화 무리가 군집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인위적으로 식물을 배치하는 경우 대칭적 구조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모양과 색채가 다른 여러 종류의 식물들을 특정 규칙에 의해 배열하기 보다는 대칭적으로 배열할 때 미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식물의 자연적 혹은 인위적 배열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화면에 식물을 배열하는데 있어서 구성의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한다. 첫 번째는 대칭적 나열이다. 식물은 그 자체가 대칭적 구조를 갖는다. 식물의 뿌리는 원뿌리를 중심으로 잔뿌리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식물의 잎은 대칭적으로 나오며 식물의 꽃이나 열매도 중심선에 대칭적이다. 따라서 대칭적 구성은

식물을 배열하는데 있어서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대칭적으로 나열하는데 있어서 화면에 식물 자체의 대칭적 구조를 있는 그대로 형상화하기 보다는 특정 식물을 대칭의 위치에 있도록 구성한다. 이러한 대칭적 구성은 식물의 지나친 단순성을 보완하고 화면 구성에 있어서 안정감을 제공한다. 또한 동일선상에 있는 시선에서 다른 관점의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식물의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한다.

식물 배열의 두 번째 원리는 다각적 관점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은 평면적인 대상이 아니라 입체적인 대상이다. 이러한 입체적인 식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식물 자체를 음영이나 색채를 통해 입체적으로 형상화하기 보다는 한 식물을 상하좌우의 각기 다른 측면에서 관찰한 모습을 동일 평면에 군집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입체감을 표현한다.

이러한 다각적 관점의 나열은 군집적인 식물의 생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식물의 입체적인 외양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름 없는 작은 식물이나 고사된 식물도 상하좌우의 다른 측면에서 자세히 관찰할 때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식물의 새로운 외양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채집된 식물은 평면적이지만 이러한 식물을 각도를 달리하여 관찰함으로써 채집 전 입체적 상태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던 식물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식물을 관찰하는 것은 식물에 대한 재조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 결과를 한 화면에 동시에 나열함으로써 식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상하좌우에서 관찰된 모습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다. 동물은 관점에 따라 관찰되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만 식물은 그렇지 않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관찰된 유사한 형상을 한 화면에 나열함으로써 식물의 군집

성도 표현할 수 있다.

화면 상에 시도되는 대칭적 나열과 다각적 관점의 나열은 작품의 배치와 설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유사한 형태나 소재의 작품을 대칭적으로 나열하여 식물의 유사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확인하거나 군집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즉 식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형화하는 동시에 식물 고유의 생명성을 표현하기 위한 색다른 시도인 것이다.

3) 설치

자연 속의 식물은 입체적으로 존재한다. 지표에 뿌리를 내리고 공기와 햇볕을 통해 유기적 화학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 식물은 성장하고 유지되며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이러한 식물의 입체성은 채집과 드로잉이나 판화의 조형작업을 통해 평면적으로 표현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미술의 형식으로 전시하기도 한다.

설치미술은 평면적인 회화나 조소와는 다르며 완성된 작품을 전시공간에 걸거나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나 물체들을 수집하여 전시공간의 여건에 맞게 설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치미술에서는 작품을 어디에 꾸미느냐 하는 장소의 문제,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의 재료의 문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발상의 문제가 다른 장르에 비해 중요하다.⁷⁾

이와 같은 설치 미술의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입체적 식물을 평면화한 제약을 보완한다. 즉 평면으로 표현된 드로잉과 판화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식물의 입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첫째, 드로잉과 판화로 표현되기

7) 서성록, 「설치미술 감상법」 서울 대원사, 1999, p.11

이전의 채집된 식물을 설치 공간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보편적인 식물 채집은 입체적 식물을 평면화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식물을 평면화하는 채집과정보다는 동물의 표본 상태를 본뜨는 새로운 방식의 채집을 시도했다.

나무 재질의 표본 채집을 활용하거나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종이 상자에 식물을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식물의 고유한 상태를 유지한 채 채집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채집과정을 전시공간에 있는 그대로 설치했다. 서랍형 상자에 채집된 식물을 넣고 서랍을 열어 두거나 서랍이 열린 상태의 상자를 쌓아 올림으로써 입체적으로 채집된 식물을 제시하고 상자 자체를 설치함으로써 식물의 입체성을 표현한다.

둘째, 채집된 식물이 드로잉과 판화로 표현하기 이전의 시간을 설치공간에 함께 표현한다. 서랍형 상자에 들어있는 식물을 드로잉한 시간을 상자에 기록하고 완성된 드로잉 작품을 함께 설치한다. 식물의 채집과 조형화는 자연 상태의 식물을 시공간적 제약을 통해 설치공간으로 옮겨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식물이 채집된 시간을 상자 표면에 기록하면 관람자로 하여금 상자 속에 채집되어 있는 식물과 상자 표면에 기록된 시간, 드로잉으로 조형화된 식물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게 하여 자연 상태의 식물과 조형화된 식물 간의 시간적 연속성을 부여한다.

셋째, 식물과 작품을 동시에 설치함으로써 평면적인 드로잉의 개념을 입체적으로 확장한다. 드로잉이나 판화 작품만을 배치,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드로잉과 판화의 소재가 되었던 식물을 함께 설치한다. 이러한 설치의 작가의 작품 제작 과정을 관람자가 관찰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한다. 관람자는 평면상에 추상적으로 표현된 드로잉과 판화 작품만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소재 상태의 식물을 동시에 접함으로써 구체적 식물의 추상화 과정과

입체적 식물의 평면화 과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채집 상자를 이용한 드로잉 및 판화 작품의 설치는 평면적인 드로잉과 판화의 소재가 되었던 식물을 원형 그대로 제시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평면화 된 식물에서 배제되었던 공간의 입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채집을 통해 단절되었던 시간적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요컨대 보완적 설치를 통해 관람자는 작가의 작업 과정에 동참할 수 있고 구체적 대상의 추상적 표현과 입체적 대상의 평면적 조형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시공간에서의 이러한 설치를 통해 작품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작품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와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4) 모노톤(Monotone)

식물의 색채는 초록색, 푸른색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식물의 생명성은 싱그러운 초록색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식물이 가장 성장한 상태는 식물의 푸르른 잎이 무성한 상태이다. 결국 초록색이나 푸른색은 식물의 생명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색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나 탐스러운 열매가 나타내는 색채도 식물의 생명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의 상태인 순간에도, 싱그러운 잎이 떨어지고 꽃이 열매로 결실을 맺는 순간에도 생명성은 유지되고 있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즉 초록색이나 푸른색, 형형색색의 꽃과 열매의 색채가 식물의 생명성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만 식물

고유의 색채가 빠져나간 갈색 톤의 색채는 생명성을 암묵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식물을 채집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 색채를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종류가 다른 식물들이고 각기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식물들이지만 채집의 과정을 거치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갈색 톤의 단색조를 띠게 된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식물이나 작고 소박한 이름 없는 들꽃이나 채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결국은 무채색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은 식물의 생명성을 표현하는데 갈색 톤이 주조를 이루는 모노톤의 색을 선택한다. 모노톤은 이미지를 떠나 회화에서 순수함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색채이다. 회화에서 모노톤을 사용하는 것은 물질을 이용해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정신세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모노톤의 색채는 모든 색채의 잠재성을 내포하는 정신 상태를 표현한다.

이러한 모노톤의 특성은 식물의 잠재적, 원형적 생명성을 가장 잘 표현한다. 우선, 식물의 잠재적 생명성은 씨앗의 색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물마다 푸른 줄기와 잎의 색채는 차이가 있고 꽃과 열매의 색채는 각기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식물의 씨앗이 나타내는 색채는 그 씨앗이 어떤 색채의 잎과 꽃을 갖게 되는지와는 별개로 갈색 톤이 주조인 유사한 색채이다. 즉 씨앗의 색채를 통해 볼 때 갈색 톤이 주조를 이루는 모노톤은 식물의 잠재적 생명성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

둘째, 식물의 원형적 생명성도 갈색 톤의 모노톤으로 가장 잘 표현된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식물들의 잎과 꽃이 떨어지고 마르고 쇠퇴한 듯한 나뭇가지만이 남아있지만 계절이 바뀌면 그 나뭇가지는 다시 잎을 틔우고 꽃

망울을 터뜨린다. 죽은 듯이 보이는 갈색의 나뭇가지는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다시 역동적인 생명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갈색 톤을 띠는 앙상한 나뭇가지는 생명의 단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길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명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고 반복되는 식물의 근원적이고 원형적인 생명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관화나 드로잉에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기 보다는 갈색 톤이 주조를 이루는 모노톤을 사용하는 것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흙과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하다. 요컨대 갈색 톤이 주조를 이루는 모노톤은 식물의 잠재적, 원형적 생명성과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색채라고 할 수 있다.

5) 드로잉(Drawing)

'드로잉(Drawing)'은 '그리다, 선을 긋다'의 의미를 갖는 'Draw'에서 온 것으로 'Draw'의 원래의 뜻은 도로상에서 마차를 끄다는 표현인 '당기다' 혹은 '끌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어원을 통해 볼 때 드로잉은 화면에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당기거나 끌어서' 표시를 남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드로잉은 어떤 시각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 중 하나로서 어떤 도구를 손에 쥐고 느낌이나 생각을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드로잉은 시각 자극을 끌어당겨 화면에 옮기는 가장 근원적인 표현의 시작이다. 실지로 인간은 말을 하거나 글을 배우기 이전부터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며 매우 구체적인 표현 수단이다. 르네상스 이후 드로잉은 조형 예술에 있어 기초적인 훈련과 최종 작품 구상을 위한 준비 단계로 인식되었다. 즉 드로잉은 그 자

체로 독립된 표현 양식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미술 형식에서 부차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 것이다.

그러나 인상파 화가들은 작품을 ‘미완성’ 상태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고 드로잉의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빠른 손의 움직임으로 화면에 대상을 ‘당기고 끌어오는’ 드로잉의 성격을 명확히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즉 드로잉은 ‘그린다’는 원초적 행위로서 완성을 위한 종속적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미술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드가(Degas)는 ‘드로잉은 형태가 아니라 형태를 보는 방법’⁸⁾이라고 했다. 즉 드로잉을 통해 예술가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다양한 형태로 '드로잉'하는 것이다. 드로잉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재료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에 대해 구체적인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이다. 따라서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드로잉에는 내포되게 된다.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다른 대상과 구별하고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드로잉은 이미 알고 있던 일상적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관찰하고 자신의 주관을 개입시켜 전혀 다른 새로운 대상으로 묘사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예술가의 관점으로 화면에 당기고 끌어오면서 새로운 대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식물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상이다. 자세히 관찰하거나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식물의 존재 여부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대상이다. 이러한 식물을 본인의 작품세계에

8) 최병식, 「세계 드로잉 대전 (상)」 서울 한국미술연감사, 1987, p.14

‘당기거나 끌어옴’으로써 새로운 대상으로 인식하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드로잉이다. 드로잉은 식물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또 다른 표현 방식을 위한 토대인 것이다.

채집한 모든 식물들은 가장 먼저 드로잉을 통해 표현된다. 식물은 상하좌우의 각기 다른 시선과 관점에서 자세히 관찰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물을 채집했던 장소나 시간, 관련된 기억, 식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본인만의 주관과 정서가 개입된다. 실지로 드로잉 한 화면에는 식물과 함께 식물을 채집했던 날짜와 시간, 식물의 실측 크기 등을 함께 기록한다. 이제 화면에는 식물의 외형과 함께 본인의 주관과 정서가 포함된 새로운 식물이 당겨오고 끌려와서 ‘드로잉’되는 것이다.

채집 상태의 식물은 자연 그대로의 대상이었지만 드로잉 상태의 식물은 자연 그대로의 외형과 작가의 관심이 내포된 상태의 새로운 대상이다. 즉 자연 상태의 식물이 채집과 드로잉의 과정을 통해 자연 상태의 생명력과는 또 다른 의미의 생명력을 갖는 '본인만의 식물(ego-plants)'이 되는 것이다. 드로잉 상태의 ego-plants는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이고 관화나 설치로의 또 다른 표현을 위한 새로운 대상이자 토대가 된다.

드로잉은 채집과 동시에 혹은 채집한 직후 이루어진다. 채집된 식물의 숫자만큼 드로잉 했던 ego plants는 누적되고 식물이 채집되어 보관되는 상태의 시간만큼 드로잉 했던 ego-plants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 채집은 단시간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되고 유지된 작업이었다. 따라서 드로잉도 채집과 함께 반복되고 지속되어 누적된 작업이다. 요컨대 드로잉은 채집 상태의 식물의 외형적 모습과 식물에 대한 본인의 주관과 정서, 식물에 대한 본인의 관심 및 관점의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다.

3. 작품설명



【작품 1】 Ego-Plants, 90cm×60cm, collagraphy, 2007



【작품 2】 Ego-Plants, 90cm×60cm, collagraphy, 2007



【작품 3】 Ego-Plants, 90cm×60cm, collagraphy , 2007



【작품 4】 Ego-Plants, 90cm×60cm, collagraphy, 2007.



【작품 5】 Ego-Plants, 90cm×60cm, collagraphy, 2007

<작품1>을 포함한 다섯 개의 작품은 콜라그래피(colligraph) 기법을 이용한 지판화이다. 이 작품은 종이 위에 재질이 다른 재료를 덧붙여서 판을 만들어 찍는 볼록판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칼이나 니들을 이용해 파내고 긁어내어 만든 오목판으로 작업하였다.

특히 볼록판이 아니라 오목판을 선택한 이유는 여백의 공간 안에 선적인 요소를 담아 판화 작품이지만 드로잉의 느낌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법에 의한 이 작품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의 모습과 함께 그동안 식물채집을 하면서 본인이 느껴왔던 작은 식물들의 아름다움과 생명체의 신비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1>은 씨방 안에 있던 씨앗들이 막 터져 나오려는 순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퍼져나가고 매달려 있는 씨앗의 순간적인 모습을 통해 풍요롭고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씨앗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에 있는 미세한 주름들과 얇은 선들은 니들과 사포로 스크래치를 주어 묘사하였다. 배경의 흔적을 표현하고자 만든 얼룩들은 니스를 이용해 명암의 대비를 확실하게 나타낸 것이다. 판을 닦아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차이를 두어 단조로운 배경에 명암의 변화를 주었다.

<작품2>는 긴 형태의 씨앗 주머니를 표현한 것이다. 다양한 시선과 관점에서 관찰한 드로잉 작품을 기반으로 작업한 판화작품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다각적 나열의 형식을 표현했다. 화면의 중심에 옆에서 관찰한 모습과 위에서 관찰한 모습을 나열하여 구성하였다. 또 색감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더 어두운 톤으로 표현하였다. 관찰한 식물의 겉 표면이 매우 거칠고 어두운 색을 띠었기 때문에 니들을 이용한 점들을 통해 거친 질감들을 묘사하였

다.

<작품3>의 모습은 얼핏 보면 단풍나무의 씨앗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열대식물의 씨앗을 묘사한 것이다. 이 씨앗은 크기가 작은 것은 10cm에서 큰 것은 20cm 가량으로 매우 크고 날개의 부분에는 자잘한 솜털이 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이와 같은 작은 잔털의 모습을 묘사하고자 수많은 작은 점들을 찍고 칼집을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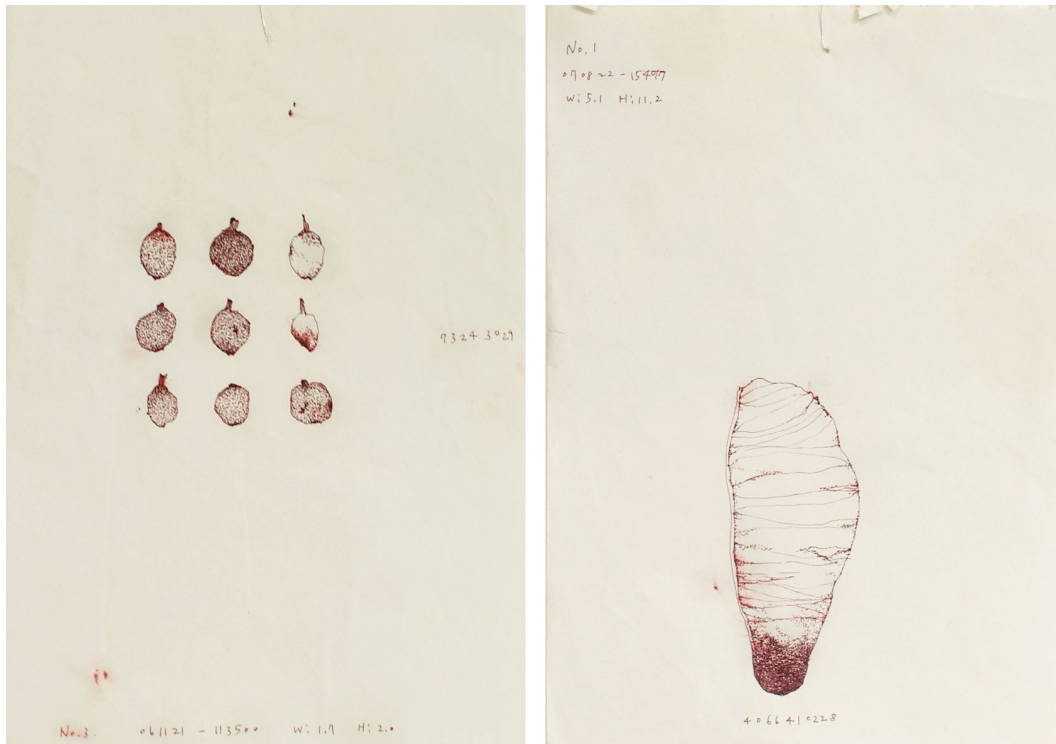
이 작품 또한 4가지 방향에서 본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씨앗의 큰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 화면 가득 씨앗의 이미지를 채워서 표현하였다. 씨앗의 길쭉한 모양은 세로로 구성하여 배치함으로써 시원한 곡선의 느낌을 살리고, 씨앗 날개의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을 함께 구성하여 묘사함으로써 공간의 답답함을 피하고자 하였다.

<작품4>는 뾰족한 장미의 가시를 묘사한 것이다. 장미의 가시는 각각 그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조형적 표현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군데군데 찍혀있는 점의 모습이나 가시의 겉면에 드러나는 얇은 선들을 정밀하게 묘사하였고, 가시를 뜯어내었을 때 볼 수 있는 단면의 모습도 나타냈다. 말라버린 줄기의 가시는 마르기 전의 줄기나 가지보다 더 단단하고 뾰족하여 마치 식물이 아닌 동물의 뼈나 뿔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느낌을 바탕으로 화면에는 식물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색채는 검정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감으로 표현하였고, 특별히 가시의 끝부분을 세밀하게 마무리하였다.

<작품5>에서는 꽃이 지고 나서 맺힌 씨앗의 모습을 탐스럽고 풍요로운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둥그런 형태의 이 씨앗은 양감이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매우 입체적이어서 화면에서도 마치 채소나 과일과 같은 형상이 주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식물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명암을 더 강하게 주어 묘사하였다. 또, 화면의 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이미지들은 오른쪽에 배치하였고, 비어있는 왼쪽의 공간은 바탕의 흔적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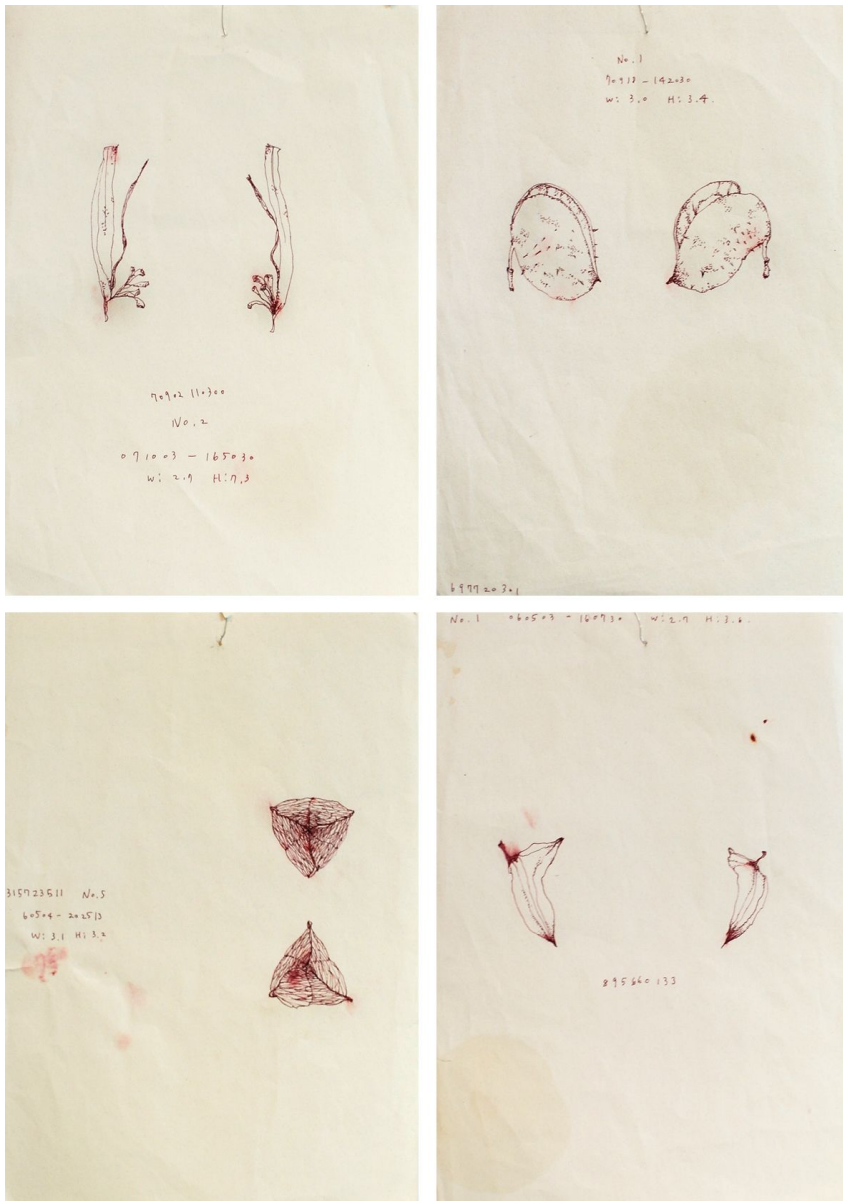
<작품1>을 포함한 다섯 개의 판화 작품들은 모두 모노톤으로 작업하였다. 흙이나 돌의 색채와 유사한 따뜻한 느낌을 주는 무채색에 가까운 갈색의 잉크를 사용하였다. 여백의 공간은 은은한 느낌으로 표현하여 편안하고 고요한 느낌을 주었다. 본인의 작업들은 작은 식물들을 들여다보고 관찰하며 표현한 것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예전에는 느끼지 못 했던 자연과의 교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교감의 경험은 작품을 통해 확장되어 이 작품을 보는 이들도 식물이 가진 생명의 존재성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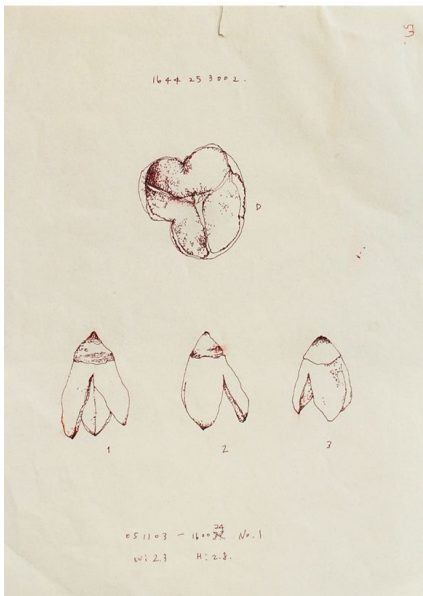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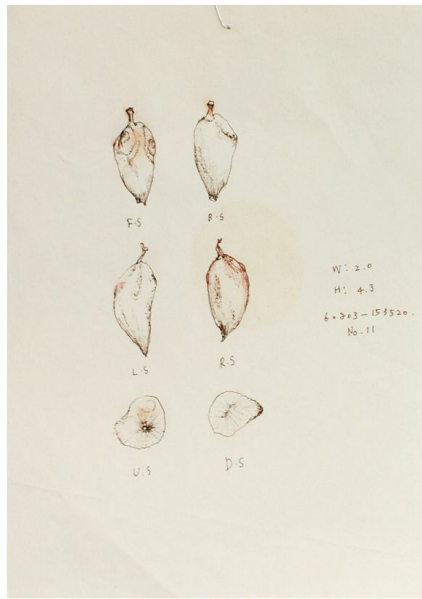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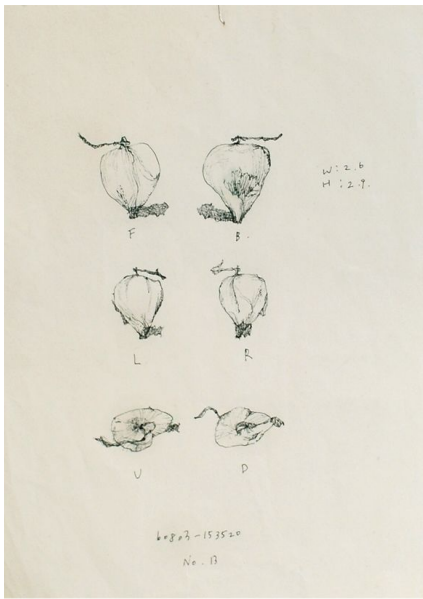
【작품 6,7】 Ego-Plants drawing, 17.5cm×25.5cm, pen on paper,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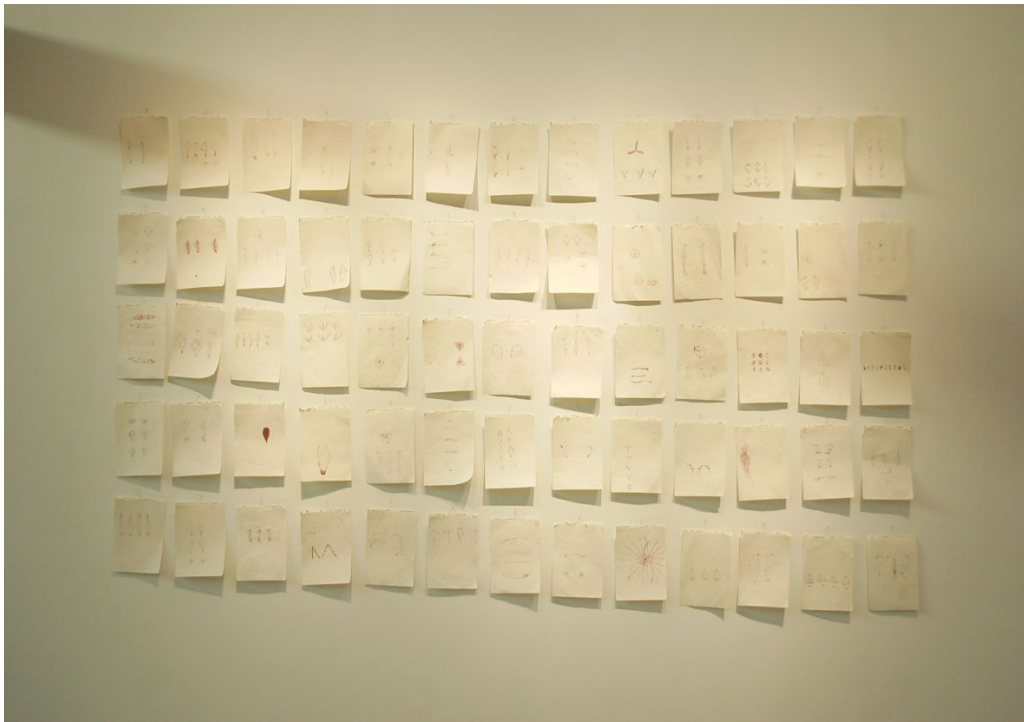
【작품 8,9】 Ego-Plants drawing, 17.5cm×25.5cm, pen on paper, 2007



【작품 10,11,12,13】 Ego-Plants drawing, 17.5cm×25.5cm, pen on paper, 2007



【작품 14,15,16,17】 Ego-Plants drawing, 17.5cm×25.5cm, pen on paper, 2007



【작품 전시 모습】 Ego-Plants drawing, pen on paper, pin, 2007

<작품6>과 <작품7>은 채집한 식물들을 관찰하면서 작업했던 드로잉 작품들 중에서 특히 점을 이용한 드로잉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드로잉들은 본인의 전체 작품 제작의 토대가 되는 과정, 즉 준비 단계로서의 드로잉인 동시에 드로잉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작품이 되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6,7>에서 보이는 작고 세밀한 점들은 식물의 작고 연약한 부분을 묘사하기 위하여 얇게 표현되는 펜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아주 얇은 펜촉은 다른 도구들보다도 작고 여린 부분을 세밀하게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도구였다. ‘점’을 이용하는 작업은 매우 오랜 시간과 노동을 필요로 한다. 식물을 묘사하는 과정에서의 점을 찍는 작업은 작업 대상인 식물에만 몰입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작업 과정에서 식물과의 교감이 더욱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수많은 작은 점들을 찍으면서 축소된 시야 안에서 확대된 새로운 대상을 만나고 그 대상과의 은밀한 교감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작품8,9>는 얇은 선을 이용한 드로잉의 부분을 보여준다. 실제로 식물의 줄기나 잎맥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선은 가장 좋은 표현수단이 된다. 얇고 뾰족한 선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사철나무의 뾰족한 잎이나 가지, 얇은 실뿌리나 미세한 잎맥들을 묘사하였다. 짧고 단단한 느낌의 선과 길고 유연한 느낌의 선들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각각의 식물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느낌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작품 10,11,12,13>은 대칭적인 구성을 보이는 드로잉들이다. 넝쿨의 열매와 난의 꽃봉오리, 열대식물의 단단한 껍질 등으로 보이는 다양한 식물들을 좌, 우에서 관찰하고 화면에 좌우대칭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동일한 모양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를 마주보게 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조화롭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화면 중심에 대상을 딱 채우지 않

고 대칭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식물 자체의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자 하였다.

<작품 14,15,16,17>은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여 표현한 드로잉들이다. 채집한 한 식물을 좌, 우에서 관찰한 모습과 위와 아래에서 관찰한 모습을 한 화면에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상하좌우 뿐만이 아니라 식물의 앞면과 뒷면 안쪽과 바깥쪽을 각기 다른 시선과 방향에서 관찰하여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표현은 식물을 더욱 심도 있게 관찰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담아낼 수 있다. 식물을 채집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관찰하려고 노력한 부분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최대한 식물의 많은 부분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작품 전시모습>은 설치할 때 드로잉 작품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각각 식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드로잉들은 식물들의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의 시간성과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누적된 드로잉들은 엮어서 한 권의 책으로 보관할 수도 있지만 전시모습과 같이 하나의 전시 공간에 모아 놓고 한 벽면에 펼쳐서 전체를 볼 수 있게 설치할 수도 있다.

마르고 연약한 식물들의 이미지와 어울리게 설치하기 위하여 벽에 핀을 박고 얇은 철사를 연결하여 작품을 전시하였다. 핀과 철사는 채집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였다. 채집과 함께 모아 놓은 드로잉 작품의 종이들은 닳거나 구겨지고 때론 찢어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 빛이 바라고 낡아지는 느낌을 잘 나타낸다. 보관할 때 생길 수 있는 얼룩이나 드로잉 작업에서 했던 낙서들, 또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번지는 효과를 내어줌으로써 흔적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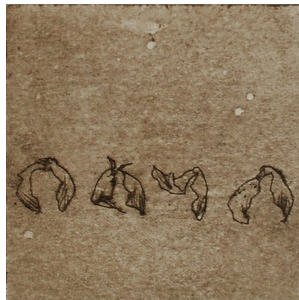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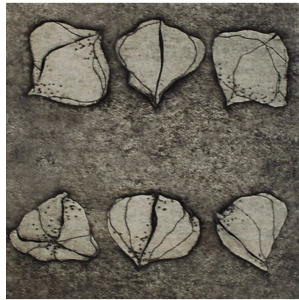


【작품 18】 Ego-Plants, 40cm×40cm×4, Gum bichromate printprint, 2005

<작품18>은 채집한 식물들을 소재로 검 프린트 기법⁹⁾을 이용한 작품이다. 이 기법을 사용한 까닭은 이 기법이 사진이나 판화, 또는 회화 같은 느낌까지도 담고 있는 특징을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작업 과정은 채집 북에 펴서 눌러 말린 식물들을 스캔한 후 필름으로 만들어 은은한 모노톤의 색감으로 표현한 것이다. 모노톤의 색감을 사용한 것은 오래된 책을 펼쳤을 때에 끼워져 있던 식물을 보았을 때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한편 식물의 잔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빛이 바랜 느낌의 갈색과 어두운 녹색 물감을 섞어서 부드러운 회색에 가까운 톤을 만들었다. 식물의 이미지들은 줄기나 잎, 싱싱한 꽃잎 보다는 가을이 되어 마르고 색이 바랜 씨앗이나 씨앗의 껍질들로 형상화했다. 싱싱한 푸른 식물의 이미지보다 마른 씨앗의 이미지를 식물의 이미지로 표현한 이유는 마른 식물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의미를 담을 수 있으며 씨앗의 이미지가 다시 피어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식물의 잠재된 생명의 존재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9) 검 프린트(Gum bichromate print) 기법이란 현대의 사진가들에 의해서 부활된 초기의 사진 처리법을 의미한다. 검 프린트 기법에서는 컬러 색소를 가진 감광성 고무 용액이 유제로 쓰여지며 인화 과정에서 사진의 표면을 조작할 수 있다.



【작품 19,20,21,22】 Ego-Plants, 15cm×15cm×4, collagraphy 2006



【작품 전시 모습】 Ego-Plants, collagraphy, 2006

<작품19,20,21,22>는 사이즈가 작은 판화작품의 특정 부분을 보여준다. 작은 사이즈의 판화는 큰 사이즈의 판화작품보다 소품으로서의 효과를 갖는다. 판 자체를 작게 제작하면서 화면의 크기는 전부 다르게 만들었다. 소품으로 만드는 대신 작품수를 많이 만들어 군집하여 있는 식물들의 작은 이미지들이 아기자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큰 화면의 판화에서처럼 이미지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한 구도로 담기 보다는 작은 화면에는 한, 두 개의 이미지만을 담았다. 진한 무채색 계열의 잉크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명암의 대비를 강하게 나타내고자 했고 반전의 효과와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오목판과 볼록판의 형식을 적절히 섞어서 제작하였다.

바탕이 어둡고 이미지가 밝은 것과 바탕이 밝고 이미지가 어두운 것을 대비시켜 단조롭지 않은 화면을 구성하고자 했다. 특히 화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종이 프레임을 만들어 입체감을 살리고 중앙에 여백 없이 배치하여 작은 크기가 주는 빈약한 느낌을 피하는 동시에 식물의 이미지에 집중할 수 있는 구도로 표현하였다.



【작품 23】 Ego-Plants, 23cm×30cm×15cm , Paper Box, 2007

<작품23>은 채집된 식물을 전시장의 공간 안에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설치’ 작업을 이용하였다. 우선, 식물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자연적인 재료인 종이를 이용해 종이상자를 만들었다. 또한 서랍식 상자의 겉면에 드로잉 작품에 기재했던 번호들과 동일한 일련번호들을 기재한다. 이 번호들은 상자 안에 넣어 놓은 채집된 식물들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설치작업 또한 그동안의 채집 과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드로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자는 가로 23cm, 세로 30cm, 높이 15cm의 사이즈로 다소 크기가 큰 식물이나 열매들까지도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 마른 식물들의 얇은 잎이나 껍질 등이 떨어지고 부스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자의 안쪽에는 부드러운 펠트 천을 깔아 놓았다. 이러한 채집 방식은 기존의 채집보다 식물을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보관하기에 용이했다. 설치작업에서 상자들은 순서 없이 자유롭게 쌓아 올렸고 군데군데 단거나 열어놓아 관람자들이 식물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Ⅲ. 결 론

식물의 생명력은 역동적이면서도 정적이기에 간과하기 쉽지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식물의 생명력은 식물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오랜 시간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작고 이름 없는 들풀이나 야생화와 같은 식물들을 관찰하고 수집하다보면 식물의 하위요소들이 각각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정적이지만 그 어떤 동물보다도 동적인 생명력을 유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강하고 원초적인 생명력을 감지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식물의 생명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식물들의 생명력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형화하고자 했다. 식물의 생명성을 구현하는 작업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채집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드로잉 작업이었다. 주변의 식물을 관찰하고 채집하며 드로잉하는 작업은 식물의 원형을 보존하며 식물과 소통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생명성을 구현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관찰의 시점 혹은 관점을 다각화한 것이다. 수집 전 혹은 수집 후 일정기간이 지난 상태의 식물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상하좌우의 각기 다른 시각, 즉 다각적 관점에서 관찰하여 표현하는 과정은 식물의 생명력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식물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은 이미 주관이 개입되어 식물의 원형을 구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식물을 다각적 관점에서 관찰하면 식물의 본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원형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각

적 관점에서 구체화하여 한 식물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여 식물의 형태와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식물의 생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모노톤의 색채 사용이다. 식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색채는 무채색 위주의 모노톤이었다. 이를 통해 식물이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다채로움 뒤에 암묵적으로 내포하는 생명력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다. 대체로 식물 씨앗의 색채나 채집 후 식물의 색채는 대체로 갈색이나 회색으로 규정되는 모노톤이다. 따라서 식물의 원형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색채는 모노톤이라고 할 수 있었다. 모노톤의 표현은 대상의 형태에 집중적으로 몰입하게 하고 이로 인해 식물의 원래 형태를 강조한다.

정적 식물과의 친밀한 소통은 새로운 관계 형성을 의미한다. 사회 속에서 사람은 다양한 대상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 타인과의 관계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물과의 관계는 식물과의 관계형성과 비교할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식물을 생명체로서 인식하고 식물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주변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과정이고 생명체의 신비로움에 대한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식물과 소통하는 작업 과정과 이를 분석한 논문 기술 과정을 통해 조형적 대상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식물의 생명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형태의 관찰에 집중하여 작업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식물의 생명성을 표현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에 대한 탐색과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앞으로 작업의 바탕이 되는 드로잉은 지속적으로 수집할 것이며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형식을 추구하여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작업을 연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앞으로의 시도와 탐색 과정에 이

번 작업과 논문 기술 과정을 통해 형성된 관점과 안목은 끊임없이 반영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기(1991).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창지사.
- 나인성(2004). 식물이미지의 드로잉 회화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효정(2006). 씨앗 이미지를 통한 유기적 생명성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루돌프 아른하임. 김춘일 역(2004). 미술과 지시각. 미진사.
- 박지숙(2002). 1980년대 회화에 있어서 '유기이미지'와 그 형상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성록(1999). 설치미술감상법. 서울:대원사.
- 이유경(2003). 식물의 성장과정을 통한 생명의 이미지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성(2002). 드로잉적 요소를 이용한 수묵화 작품제작 소고.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인(2002). 식물의 생성적 이미지가 갖는 조형적 표현성의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희정(2005). 식물에 내재한 조형미의 발견과 시각적 표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혜윤(2005). 자연을 통한 내적 공간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식(1987). 세계 드로잉 대전(상). 서울:한국미술연감사.
- 칸딘스키. 차봉희 역(2000). 점,선,면. 열화당.

ABSTRACT

Study for Existence Nature of Life Through Plant Collecting

- Centering around My Work -

Hong, Hye Rim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for analyzing the contents side and plastic side about my works made from 2005 to 2008 as a thesis to apply for master's degree.

The artist re-focuses traditional images in a new way and, reconstructs knowledge much different from traditional knowledge as she works. This makes us to have a new view.

A main material of this work is PLANTS. They're very static and easily been found around us. But they're more dynamic and deserve to be focused than any other creatures in a view of biological image. That is, plants are subjects which involves dynamic and original life power.

I was able to re-focus life images of plants and have a new recognition about life power of plants. This thesis analyses these

progresses in content, modeling way.

In the contents side of this thesis, I discuss the meaning of life and the life of plant as a modeling subject.

First, in expressing the meaning of life, structures of plants like seeds, stems, leaves are very proper to represent the image of life. Based on this analysis, I shape structures of plants in various ways. In addition, by a lifetime of plants and whole precesses after collecting, I search trace of plants and meaning of life.

Second, 'Life of plants as a modeling object' is invisible and silent. Because of these characters, plants can be understood as a new modeling object only when they are observed fully and collected constantly. That is, we can communicate with plants by observing closely, reconstructing and modeling them.

On modeling side, I explain modeling object for expressing life of plant properly, classify by 'line and face', 'enumeration', 'installation', 'monotone', 'drawing'.

First, express lines or change shape of lines into dots and faces by using various tools.

Second, Observe and model the plant in many-sided views, and express the plant in most realistic way by enumerating it on one canvas.

Third, By installing actual plants and modeling objects in same space, express original shape of plants and changing process.

Fourth, In case of color to express plant, I bring original color included in the diversity of plant into relief and try natural expression by using the monotone of brown or gray tone.

Fifth, making into information by recording original form, collecting place, time, and emotion related to collecting in drawing work simultaneously with collecting may pass with plant. And, exhibiting this result material with the work made into modeling contrives the formation of relation to be intimate with plant.

I tried to express the image of dynamic and original life and aesthetic element through small plant to be easy to overlook. In addition, I could experience the mystery and wonder of life through experience of observing and communicating small plant, and I tried to express this experience through diverse aesthetic elements.

I hope to offer the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value and meaning of life by sharing this experience with spectators.

Further, I try to look out of my work world and obtain new suggestion for future work development.